

임실 농특산물, 대도시 소비자 공략

서울시·강서구·양천구·은평구·부산진구·마포구 등 자매결연지 6곳 직거래장터 운영

임실군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대도시에서 임실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 대도시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군은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강서구를 포함한 6곳에서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열어 명절을 준비하는 도시 소비자를 상대로 한 판매와 홍보에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실군은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강서구를 포함한 6곳에서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열어 명절을 준비하는 도시 소비자를 상대로 한 판매와 홍보에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직거래장터는 서울시(2일~4일, 서울광장)를 시작으로 강서구(5일~6일, 마곡광장), 양천구(5일~6일, 양천공원), 은평구(6일~7일, 불광천 일대), 부산진구(9일~11일, 구정광장), 마포구(12일~13일, 구청광장) 등에서 열린다.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마곡광장에서 열린 직거래 행사에는 심 민 군수가 참석하여 업체들을 격려하고 장종민 군의회 의장, 이진산 농협군지부장과 함께 임실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직거래 장터를 찾아 심 민 군수와 함께 임실군과 강서구청 판매부스를 돌며, 양 지자체의 지역특산물을 소개하는 등 남다른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또 이날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임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함께 임실군청 공식 유튜브이자 홍보 채널인 임실엔TV 유독자 확보 이벤트를

행사도 병행하는 등 서울시민들에게 임실군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는 도시민들에게 임실군의 신선하고 품질 높은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자리이다.

지역 농특산물은 대표 특산물인 임실N치즈와 요거트를 비롯해 각종 치즈가공품, 유제품, 한우, 나물, 다슬기, 버섯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들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는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임실축협, 임실조합공동

사업법인과 생산 가공업체 등 15개 업체가 참여한다.

대도시에서의 직거래장터 행사는 최근 기상이변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임실군 농특산물 이미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임실군과 우호 증진을 이어나 수도권 지역에서, 임실에서 재배하고 만든 신선하고 맛있는 농특산물을 특별한 가격혜택으로 제공한다"며 "도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집중 단속

순창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부터 오는 11일까지 3일간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로당을 방문해 관련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지도점검은 시니어 감시원들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이뤄지며, 주요 점검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제품에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불법행위 등을 포함된다.

아울러 경로당에서는 허위·과대 광고의 형태를 구별하는 방법과 피해 발생 시 구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동이 웃어야 남원이 웃는다’

남원시, 아동학대 인식 개선 위한 예방 캠페인 진행

남원시는 지난 5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추진되었으며,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신고 방법, 긍정 양육 등이 홍보되었다.

한편 남원시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남원',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조기지원 체계를 구



축하여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김현옥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지난 5일 시청 강당에서 전주대학교와 함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을 위한 전주대-남원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활용 세미나

전주대-남원시, 유학생 취업·정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남원시는 지난 5일 시청 강당에서 전주대학교와 함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을 위한 전주대-남원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정주를 통한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현안 및 발전 방안 등에 논의하고자 남원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대생 교수(전주대), 정광호 교수(서울대), 서용석 교수(KAIST)와 다수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서용석 교수(KAIST)의 인구의 질과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특강 △전대생 교수(전주대)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한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 △남원시 안순영 기획실장의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와 지역 상생 방안'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 후 정광호 교수(서울대)를 좌

장으로 서용석 교수(KAIST), 민경선 교수(전북대), 백대현 교수(전북대), 지은석 교수(전북대), 최한별 교수(군산대), 고영준 교수(충남대), 서재호 교수(부경대), 이은정 부장(에피어코리아)가 참여하여 발제된 내용으로 토론했다.

전주대학교 전대생 교수는 "세미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정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정책이 만들어질지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 민선식 부시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지역인구감소 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혁신 주니어보드 2기 출범

임실군이 MZ세대의 다양한 생각을 군정에 반영하고 유연한 조직문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젊은 공직자들로 구성된 혁신 주니어보드 2기를 운영한다.

올해는 MZ 공무원 24명, 3팀으로 2기 주니어보드를 구성하고, 내년 8월까지 여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달 27일 발대식 겸 1차 회의에서는 향후 주니어보드의 활동 과제 발굴과 토의가 이어졌다.

장기과제로 임무인수인계 매뉴얼 제작, 중단기 과제로 기존에 제작·배포했던 꿀팁 모음집의 개정과 주니어보



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포함한 여러 활동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에 군은 회원들이 건강한 조직문화와 창의적인 혁신 창출을 위해 활동하는 만큼 주니어보드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어르신 맞춤형 ICT 교육 실시

임실군이 지난 4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맞춤형 ICT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맞춤형 교육은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앱 설치·실행·삭제 및 카톡 사용법, 사진·저장공간 관리 등 기본적인 스마트폰 활용법 강의와 스마트폰 활용 실습으로 구성되어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AI·IoT(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등을 지원받고, 스마트폰 '오늘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 인력이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주요 도로변 흙 덩굴류 제거 나서

남원시는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약 70km를 대상으로 조림목 피해예방과 산림경관 제고를 위해 흙 덩굴류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숲기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가시권 산림에 대해 우선 추진중에 있으며, 흙 덩굴 제거작업은 1차적으로 조림지 목목의 생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행하고,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 산림경관을 개선하여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집중 실시한다.

또한, 바래봉 초입 일부지역도 흙 덩굴제거 방법을 시행하여 철쭉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